

# 1. 황인범의 구술생애사

## • 황인범의 살아온 길 •

1948년 충남 부여 출생.

1969년 서울대 문리대 입학.

1971년 교련반대시위 참여. 낙산사회과학연구회 참여와 뚝방 빈민촌 봉사활동.

1974년 민청학련사건 배후조종으로 구속.

1979년 배관공 자격증 습득. 병점 남일전지 입사.

1980~82년 1월 성남 대영상사 기관사로 입사.

1983~85년 대동화학 기관사로 입사, 노조활동과 해고

1985~87년 동부노동문제상담소.

1987년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위원장.

1988년 서울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해고무효소송 승소.

1989년 현장 복귀. 비상임시대책위원장으로 파업투쟁. 해고

1990년 업무 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기소, 구속.

1991년 행당2동 재개발 강제철거 반대투쟁. 세입자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1995년 구청장선거 무소속 출마.

1996년~현재, 자연의학 연구 및 강의, 요가·명상·환경운동, 사회복지사로 봉사활동.

※ 황인범의 구술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주한 '1970년대 노학연대' 구술작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1일 면담자의 용산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2월 4일 구술자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 장남으로 총애받던 어린 시절

●●● 자료를 보니 출생 연도가 49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지요?\*

원래는 48년 1월 1일인데 호적을 쫓끔 늦게 올려서 그리된 것입니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3남 1녀에서 장남이고, 바로 남동생이 밑으로 둘이 있고, 막내가 여자동생입니다.

●●●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셨는데, 부여군 은산면 면장, 부여읍 읍장,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공무원이 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 산지기를 하셨어요. 은산면이 아주 깊은 시골이었는데, 그런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가, 아버님이 어떻게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때 부여로 와서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다가 나중에는 읍장 되시고, 지역에서는 좀 유지급이 되신 거죠.

●●● 성장과정에서 선생님의 삶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로부터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는 장남이라고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엄청 소외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항상 전교에서

\* 이하 ●●● 표시 다음의 질문들은 이 책의 편자인 유경순의 것이다. 또 구술자의 답변 속 괄호 안의 질문이나 말들도 역시 편자의 것이다.

1, 2등 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이 총애해 주셨고요. 또, 그때는 얼굴이 굉장히 예뻐있던 모양이에요. (웃음)

●●●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멋지세요.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으면서 살아서, 나중에 우쭐감을 갖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 학교는 계속 충청도 쪽에서 다니셨어요?

예. 은산국민학교를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그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때였죠.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부여로 오시면서 나도 아버님 따라서 부여국민학교로 옮기고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학교도 부여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진학을 하려고 했어요. 면접만으로 특차모집을 하던 용산고등학교에 면접응시를 했는데, 거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69년도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했죠.

●●● 사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고향이 부여니까. 고적古蹟지대죠? 그 분위기에 조금 익숙했던 것 같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 음.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 성격은 어땠어요?

조금 급한 편이고, 뭐 한군데 빠지면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못하는 조금 집중형이라고 그럴까, 그랬었죠. 그리고 어떻든 조금 총애를 받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로부터도 많이 질시를 받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 혹시 나중에 그게 운동하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음, 사실 저는 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왜냐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너무 자만에 빠져서 해왔던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라니까 응하긴 하겠는데, 이걸 개인적인 걸로 뛰하는 거라면 아마 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어렸을 때에 성장했던 면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념서클 활동과 민청학련사건

●●● 음,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과거가 부끄러웠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대체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구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시고, 69년이면 학교 분위기가 좀 시끄러웠을 때죠?

바로 교련반대시위가 시작됐을 때예요. 저도 69년, 70년 교련반대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전에 제가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충무회’였어요. 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 가지고, 그를 모범 삼아서 따라 배우자는 활동을 했고, 허허. 또 한편으로는 유네스코 학생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좀 했는데, 교련반대시위가 진행되어 거기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 교련반대시위는 어떻게 진행되죠?

정부가 학교를 병영화 시킨다고 학생들이 반대시위도 하고, 교련수업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련수업은 의무학점이기 때문에 학점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졸업이 좀 늦어지고 이랬었죠. 73년 8월 후기 졸업을 하게 돼요. 그때 군대는 제가 신체검사에서 발이 좀 평발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보충역으로 판정이 나더라고요. 이걸 순전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 교련반대시위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본인이 느꼈던 건 뭐가요?

선배들 속에 끼었는데, 같은 학년들 중에서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죠. 어쨌든 분위기가 좋았어요.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 시위 참여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위 끝나고 아는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낙산사회과학연구회라는 서클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는 회장까지 맡았어요. 사회과학서클 활동을 시작한 것이지요. (서클 규모는요?) 회원은 제법 많았던 거 같아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데, 그중에 한 스무 명 정도가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거고. 그때는 서클마다 규모가 좀 달랐어요.

●●● 서클에서 초창기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그때는 시국이 어수선해서 한창 시끄러울 때니까 학습보다도 주로 바깥 활동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위하고, 시위와 관

런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주로 그런 거 하고, 특히 이화여대 같은 여학교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 학습은 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해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마르크스와 관련된 책들이 주류를 이뤘죠. 주로 선배들이 직접 번역한 게 많았죠. 아직 1학년이라 우리가 원서를 보기에는 능력이 좀 달라니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원서를 보지만. 그래도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쉬운 건 원서로 본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책 하나 가지고 완전하게 익히는 건 아니고, 여러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어서 읽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거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드네요.

그리고 마르크스 관련된 책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배들이 추천한 거지, 선배들이 꼭 마르크스주의자였기 때문에 권한 건 아니었죠. 그런 책을 읽는 게 하나의 유행인 것도 있죠. 그리고 농촌 등을 이해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 당시 판자촌 같은 데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할 때거든요. 노동운동, 농민운동보다도 판자촌 쪽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할 때라 그런 거 관련한 공부도 좀 하고.

●●● 예. 71년도에 광주대단지 사건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방문했던 데가 성동구 송정동 한양대학교 뒤쪽에 뚝방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보수 쪽에서 위력을 날리고 있는 김진홍 목사. 아, 그 사람이 대구대학 철학과 출신인데, 그때 뚝방에 있었던 판자촌에서 활동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뚝방 판자촌을 방문하고, 또 생활도 같이 해보면서, 참, 재밌게 지냈었는데. 오늘날 보면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판 사람처럼 보이는지. (웃음)

●●● ‘재밌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로 통하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또 당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존경했는데요, 대선배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니까 대단했죠. 우린 학생이니 가서 봉사 정도 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하게 보였죠. 그리고 2학년 때는 교련반대시위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3학년 때부터 많이 활동했던 거 같아요.

●●● 유신이 선포되기 이전하고, 선포된 이후하고 학교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한층 격양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 반유신 이론화 작업, 실천적인 변혁이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냐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활동이 펼쳐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 섭외도 들어가고 한 거죠.

●●● 민청학련 관련, 대학 내에서 반유신 활동으로 분위기를 모아가는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우선 각 서클 내에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서클 간의 연대들을 해야 되니까, 마로니에 광장에 문리대가 있었죠?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연합모임들을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위를 조직해서, 73년 10월 2일 반유신시위소위 '10·2 사태'로 서울 문리대가 제일 먼저 기치를 올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상대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각 대학을 접촉해서, 74년 봄에 대규모적인 전국적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민청학련이었죠. (주도 세력은요?) 그게 미완성된 민청학련이라는 틀에서만 보면, 소위 이철·유인태 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시위계획을 앞에 두고 학생들뿐이 아니고 아주 많은 세력들이 음으로 양으로 참여 양상을 보였어요. 반유신 전국시위가 실제로 성공을 했다면 주도세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요. 드러난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 당시 정부가 발표한 민청학련사건 조직도를 보니까 선생님은 배후 조종자로 나왔던데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군대를 갔던 사람들이 군대 공백이 3년이 짝 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군대를 안 가고 먼저 졸업했어요. 제가 졸업생으로서 문리대 10월 2일 반유신 시위부터 가담이 되었고, 이때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즉심에서 구류 29일을 선고받고 동대문경찰서에서 구류를 살고 나왔어요.

또 제가 향린교회에서 재야에서 활동을 하시던 천관우 선생 등을 모시고 ‘역사모임’을 주도했었죠. 여기에는 서울의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그뿐이 아니라 이 모임은 재야운동의 청년 그룹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여당에서 활동을 하는 이재오 씨도 있었지요. 그 이후 서로 가는 길이 달랐지만 말입니다. ‘역사모임’ 활동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한 중앙정보부가

나를 구속시켜야 하는데 배치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세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배후세력으로 선배 배후세력하고, 소위 인혁당 배후세력, 그 다음에 일본 기자들 배후세력, 크게 세 개의 배후세력을 조직도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선배 배후세력에 명단이 들어가 있고, 허허.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혁당 선배들이 인혁당 배후세력이 돼 있고. 일본에서 온 기자들 두 명인가? 이 사람들이 일본을 통해서 이북에서 무슨 조종이나 받은 것처럼 배후세력이라 해놓고, 이렇게 세 개로 해놨었어요. (웃음)

●●● 이 조직도는 저쪽이 그려 놓은 상태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만든 거네요?

그려 놓은 거죠. 단순히 졸업했기 때문에 배치할 때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허허.

●●● 졸업생이라는 조건에서 선생님은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졸업을 했어도 졸업한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서클 중심, 아니면 과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했어요. 그리고 또 선배니까 후배를 사회운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역사모임’도 그 일환이었고요. 지금 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 정동영 의원도 저의 사학과 후배로서 일정한 시기 동안 저와 같이 활동을 했지요. 그런 관계는 있었지요. (예.) 있었지만 저런 엄청난 무슨 국가를 전복하고,

허허, 이런 거하고는 사실 거의 무관하고. 관계가 있다면 시위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선배라는 입장에서 도와주기 위해 인맥이나, 아니면 방법론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고 보는데, 무슨 국가전복의 배후 세력이라니. 그건 순전히 반유신 민주화운동인데.

●●● 예. 그러면 졸업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얘기를 바꿔 여쭙 보면, 민청학련사건 이전에 사회운동 모색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지향점을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쪽이 판자촌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민청학련사건이 딱 터져 버리니까 바로 실행을 못했지요.

●●● 그 시기에는 다른 학생운동가들이 사회운동으로 나간 방향은 어땠나요?  
그 당시는 시기적으로 좀 애매했죠. 왜냐하면 학원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뭔가를 같이 움직여야 할 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지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걸 해나가는 상황은 좀 못됐었죠.

●●● 제가 얼핏 들었던 게, 당시에 '현장지향성을 갖고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관돼서 학내 시위를 안 하고 그쪽으로 가자는 흐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 물론 관심들은 현장에 있었죠. 현장지향적인 분위기는 뜻이 있는 사람이면 다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

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장 주어진 이 문제를 우선해야 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접근해 나가자’ 해서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 그럼 다시 민청학련 관련 얘기를 할까요. 민청학련이 조직된 목적이 뭐죠?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그 유신헌법에 근거한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반유신 전국반대시위운동이고, 시위조직이죠. 뭐냐면 반유신은 맞지만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국가를 전복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든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역량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거나 관계가 있었던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개인으로서는, 이 시위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좀더 혁신적인 생각도 품고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아야지요.

●●● 인혁당 쪽은 민청학련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관련된 건가요?

소위 ‘인혁당 재건’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지목되었던 분들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관련이 있었죠. 그게 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면 인혁당 관련한 모든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든가, 조직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다고 봐야지요. 그분들이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시위를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

다든지, 더구나 국가를 전복하고 노농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배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안기부의 조작이지요. 왜냐하면 상황이 나 역량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허무맹랑한 일이지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 그러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운동권이 반정부적인 의식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일반 대학생들도 대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학생들을 분리시켜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색깔을 아주 진하게 칠해 버렸죠. 그래서 ‘인혁당사건’을 조작해서 그것과 연결해 우리 사건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정권에게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 그 사건으로 선생님은 형량을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졸업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교사 하러 갈 생각은 안 했으니까 교사자격증을 따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영등포에 있는 장흥중학교에 역사교사로 좀 있었어요. 그런데 4·3 긴급조치가 떨어지고 수배령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피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수배 때문에 도피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74년 4월 25, 6일경에 제가 검거가 됐죠. 그래서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지낸 지

1년도 안 되어서, 75년 2월 17일 날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왔죠.

●●● 잡혀서 수사받으실 때 심한 고문을 받으셨나요?

다 받았죠. 고문의 정도가 어떤가 하는 차이는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좀 늦게 검거된 탓도 있어서 더 심한 고문을 당한 거 같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최소한 무릎 꿇리고, 무릎 사이에다가 각목 끼 놓고 밟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먹으로 때린다고든가, 이런 건 항상 하는 거예요. 이런 고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물고문, 전기고문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또 그렇게 고문해야 할 만큼 캐야 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자기들도 판단했을 거고. 그리고 검거되어 안기부에서 내가 진술할 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작성해 놓은 거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가지고 서로 실랑이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하겠다’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거였지. 자기들이 그려 놓은 그림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 집에서선 선생님이 구속되면서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요? (예.) 아무래도 집안에서 중심적인 위치인 데다가 신망을 받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족들이 크게 문제 삼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려고. 단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 ‘아, 앞으로 커서 관검사나 크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자질구레하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머니 꿈이 깨지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에 꿈이 깨졌지. 왜냐면 그 당시는 내 나이가 몇 살 안 됐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나

중에라도 얼마든지 되리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두고두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점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웃음) (갈수록 이상한 데로 가, 허허.) 노동운동 한다, 뭐 한다면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아이구, 이게 아닌데...’ 하신 거고. (웃음)

●●● 감옥생활 하시면서 기억나시는 거는?

감옥생활은, 참, 재밌게 했어요. (음, 동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같이. 아, 처음에 조사받을 때하고 감옥 막 들어가서 잠깐 동안은 굉장히 삭막하고 엄혹하고 그랬지, 그 시기 지난 다음부터는 거기가 완전히 자유공화국이야, 거기가. (웃음) 처음에는 완전히 독방인데다가 그렇다고 물건이 들어오길 하나,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가 됐으니까. 나중에 조금씩 감시가 풀어지면서 나아졌고. 또 방도 모자라고, 우리가 자꾸 싸워 가지고 합방을 했어요.

그래 우리끼리 합방해서 거기서 세미나도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개인적으로 먹을 거 들여 보내준 걸 합치면 먹을 것도 많아요. 또 운동시간에 운동하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재밌었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세미나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그리고 처음에는 웬만한 책들을 안 넣어 줬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비밀통로가 많아 가지고, 또 간수들 중에 접선을 해주는 간자(間者)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간수님들이 많았어요.

●●● 허허, 주로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때는 인혁당 선배들도 있었고, 우리 학교 동창들도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누구누구 같이 있었는데는 사실 기억은 안나는데... 많은 동료들이 안양교도소에 있었는데, 대개 한 방에 6~7명씩 있었고.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한 개 동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동 자체가 해방구가 되어서 왕래도 자유롭게 해서 내 방에 누구누구 있었는데는 헛갈려요.

### 출감과 출판사 취업

●●● 구속됐다가 75년도에 나오셔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리를 좀 했죠. 책 보고 생각하고 서로 세미나 하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시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나가서 현장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정했죠. 감옥에 있던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여러 층이니까. 그러나 ‘현장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감대가 있었죠.

●●● 선생님께서 ‘노동현장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분위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줬겠죠. ‘노동자들의 생활상, 노동자들의 조직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역시 우리 인텔리 계층이 어느 시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운동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또 해봐야 그분들의 고통이나 요구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였죠. 그 이유 때문에 그게 어느 시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70년 전태일 분신사건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 음. 혹시 전태일 분신사건을 접했을 때, 어땠나요?

아유, 그때 많이 울었죠. 그건 상상도 못할 사태니까. 사람이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온몸으로 호소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참,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대성도 느끼고, 또 그 길밖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에, 참, 서글프기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 그럼 감옥 나오시면서 현장 들어갈 준비를 바로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출옥했어도 법에 묶이고 제한당하고 감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형집행정지로 나와 가지고, 형기도 아직 남아 있어서, 저들이 언제든지 나를 잡아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아버님이 몸이 아프셔서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셨어요, 그러니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그 전까지는 바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벌어서 생활을 꾸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자마자 동생이 군대를 들어가 버렸거든요. 또 둘째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여동생도 중학생이니까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현장

들어갈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취직한 곳이 신경림 선생이 소개해 주었는데, 태극출판사였어요. 그 사장이 고대 철학과 출신이었고, 제가 출판사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글자 고치는 거 하고, 허허. 그런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신경림 선생께 너무 죄송한데, 이게 노동운동에 대한 머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한 거야.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노동법 읽히고. (웃음)

●●● 거기서 현장 조직화 연습을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때로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맞춰서 모습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항의한답시고, 막, 수업을 기른 채로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못된 짓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못 드렸는데. (웃음) 굉장히 죄송하던 생각을 신경림 선생한테 하고 있죠.

●●● 그런 생각은 나이 드셔서 하신 거죠?

저도 그 이후에 활동을 하다 보니, 다들 그렇게 하셨지만, 밤낮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만한 여유를 거의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활동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성과를 올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의 돌아보는 걸 못했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내가 명상수련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된 거죠.

●●● 흠. 이 출판사에서는 얼마 정도 계셨어요?

출판사에는 75년 10월 달에 들어가서 76년 1월까지 있었어요. 그리

고 바로 금성출판사로 옮겨서, 그러니까 76년 1월 달에 들어가서 77년 11월까지 한 2년 다녔죠.

그런데 금성출판사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막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막 쥐어짜듯이 심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출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계의 본능이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살 길이 없다' 해 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참기 어려운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회사에 갔어요. 그런데 출판사에 도착해 좌석에 앉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회사가 저기 명동 성모병원 있죠? (예.)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응급치료 받고 겨우 위기를 넘겼지요. 그런데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못 있는 거야. '퇴원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퇴원해서,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렇게 두 번을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지금 보면 그게 협심증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나는 빨리 거기 나와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했지, 내 병이 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만약 그게 잘못됐더라면 저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용케 버텼어요. 그렇다고 계속 치료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그게 협심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왜 협심증에 걸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 처음에는 너무 밤낮없이 뛰어다녀서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옥중생활을 잘못된 거야. 너무 많이 원칙없이 먹은 거야. 그 당

시는, 참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밥에 계란 풀고, 또 설탕도 넣고, 또 마가린 넣어서 비벼 먹고. 전부 나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전에 68kg 정도 나가던 몸무게가 감옥 나와서 재니까 74kg 나가더라구요. 그때는 살이 좀 붙으니까 보기도 좋고 오히려 좋아했지요. 정말 무지했지요.

### 노동현장 준비와 남일전지 입사

●●● 그러면 현장 갈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불광동에 방을 구해서 생활하면서 금성출판사 다닐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부터 기능기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열관리, 배관, 또는 용접, 그 다음에 환경관리. 이런 공부를 저녁에 학원도 나가서 배우고, 대부분은 책 사 가지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77년 11월에 출판사를 그만둬요. 여기서도 내가 또 가만히 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는 데마다 속을 썩였어요, 좌우간. (웃음) 그러다가 77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능기술 공부를 해서 79년 2월 달은 배관공 자격증을 따 가지고, 79년 3월에 수원 병점에 있는 남일전지에 입사했어요.

●●● 노동현장에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이였어요?

원래 출발은 아무래도 이념적인 것이 매우 강했다 보아야지요. 개인적으로는 다 품고 있었죠. 단순히 그냥 노동조합운동이 아니고, 단지 당시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반합법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것뿐이지

개별적으로는 다 이념성이 있었다고 봐야죠. 현장노동자 출신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했고, 그래도 학생 출신들은 거의 어떤 이념지향이 많건 적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갖추는 과정에서 '요것만 하자. 제한하자' 이렇게 된 거지. 현장 준비할 때부터 이념성이 없었다면, 고생하면서 현장에 갈 매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내 생활 바치자' 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또 사회과학서클에서 학습 자체가 맑시즘을 많건 적건 간에 공부 안 하고 관심없이 출발했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이라도 어느 정도 이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심화시키고 얼마나 실천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 현장 들어가신 뒤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셨나요?

정운광이라던가 가까운 친구들은 가끔 보면서 잘 먹지도 못하는 술도 마시고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상대 출신이라든가 고대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만나기 힘들었어요. 조직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따로따로 준비를 하니까, 무엇을 같이 할 상황은 못 됐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자리 잡는 것이 우선 순위였으니까. 그래도 '누구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한다더라' 이런 소식은 들죠. 그리고 이 당시 그런 걸 공개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해야 되니까. 또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몸조심을 하다 보니, 어쨌든 현장에 들어갔으니 현장부터 지켜야 했어요.

●●● 그런데 수원에서는 어떻게 공장을 다니신 거죠?

거기에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자취생활하면서 주말에 쉴 때 가끔 집은 들르고 했어요. 여기서 79년 7월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성남의 대영상사로 옮긴 게 80년 1월 달이죠.

●●● 보일러공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예. 시험 보는 거니까 땀어요. 실기는 용접은 보지만 보일러 관리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당시 현장 가는 사람들이 보일러공을 많이 했어요. 좀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 혹시 그 이전 세대들이 현장에 들어갔던 얘기, 들으신 적은 없세요?

과거에 혁신운동들은 그렇게 그냥 인텔리층으로서의 사상적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활동했지, 노동현장에 직접 들어간 선배들은 많지 않아요.

●●● 불꽃회 쪽, 김정강 씨의 경우는 현장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포함하여 몇 분 정도인데. 그분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현장에 오랫동안 붙박여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활동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지, '내가 몸소 몇 년이고 같이 생활해 보겠다. 노동자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건 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세대가 거의 1세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과거 활동하던 사람들하고 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는 다 각자 알아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였고.

●●● 그래서 수원에서 성남으로 지역이 옮겨지는 건, 어떻게 된 거였나요?

그거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은 사업장에서 큰 데로 가려고 했지요. 병점에 있는 남일전지는 규모가 한 300명 정도 될까, 대영상사는 자진거를 만들고 타이어도 만드는데, 1,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회사였거든요. 노동운동 하려면 가급적 큰 데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직업 소개소에도 알아보고 용케도 뚫고 들어간 거죠. 직장 동료들에게도 당분간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있었던 거죠.

●●● 보일러공은 생산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생산라인에 스팀을 공급해 주거나 난방을 공급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활동에 불리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꼭 불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거든. 보일러는 항상 돌아가, 내가 보일러를 꼭 지키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틀어 놓고 가끔 돌아봐서 이상만 없으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 뭐를 고치러 다니거든. 스팀이 샌다든가 아니면 물이 샌다든가, 다 기관실 보일러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보일러실이라 안 그러고 기관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내가 누구를 좀 의도적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면, 그냥 가서 만나고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훨씬 유리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대신 하나의 팀으로 묶을 수 있는 조직

력이 아무래도 취약하죠.

●●● 예. 여기서 활동은 어떻게 하신 거였죠?

거기도 노사 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조금씩 관여를 하는데,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앞장서는 건 어렵지요. 음성적으로만 하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는 신원 조회만 때려 보면 나오는데, 회사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한 거지.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있던 사람이 나가거나 그러면 우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하는 거보다도 자격증을 걸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유력한 작용을 한 거죠.

●●● 처음 현장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봤을 때, 아니면 노동생활을 해 보니, 어땠어요?

아무래도 어색하죠. 나의 삶하고 그들의 삶을 융화시킨다는 게, 참. 그런 데다가 원래 나는 술을 별로 잘 못 먹어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이게 간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쪽 분위기는 술 마시면서 얘기 시작하고, 술 가지고 얘기 끝내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 내가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접촉하고, 그러니까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술도 잘하고 사귀성이 좋은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자취하고 있었으니 사람들 자취집에 데려와서 대화도 나누고.

●●● 두번째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시작단계니까 정말 친한 사람하고만 음성적으로 만나면서, 주로 공장 안에서 어떻게 내가 터전을 잡을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82년 10월경에 해고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마침 그때 도시산업선교회 문제가 터지면서 시끄럽다 보니까, 회사에서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고됐는데, 여기에 노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사회상황이나 개인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냥 조용하게 회사를 옮긴 거죠. 거기 나와서 그 다음에 대동화학에 취업해요. 거기는 대영상사보다 더 규모가 컸지요. 성동구 광장동에 있는 공장인데, 지금은 회사가 다른 데로 옮겨 가고 아파트 지대로 변했는데, 이게 말표 신발을 만들던 회사예요. 나중에는 등산화, 군화,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 남일이나 대영, 대동 쪽에서 선생님이 받으셨던 임금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린 기능직이니까 보일러가 생산직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때 그냥 월급 받으면 집에 좀 생활비 보태 주고 내가 쓰면서 그럭저럭 살 만했어요. 더군다나 대동화학은 기관실의 기관장이니까 조금 더 보수가 높았어요.

●●● 전자 쪽하고 화학 쪽이 노동환경이나 현장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전자 쪽은 작업환경이 더 깔끔해요. 화학공장은, 정말, 천

연이 아니고 순전히 독성으로 된 물질들을 다루니까, 그 많은 독성을 마시면서 일해야 되니 직업병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냄새에 코가 문드러질 정도니까. 참,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일부러 들어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거기 피하고 싶은 정도의 현장상황이었어요. 고무 냄새, 화공약품 냄새, 말도 못했어요. 어휴.

### 대동화학의 활동과 해고

●●● 대동화학은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직업소개소 통한 거죠.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여긴 내가 기관장으로 들어갔어요. 관리자는 아닌데 현장노동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팀장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을 거느리는 자리라 영향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었고. (웃음)

●●● 그럼 여기서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일러실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서, 노동법이나 노동문제 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런데 대동화학의 노동조합이 그 당시 화학노조에 속해 있었는데, 나름대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차는 거죠. 노조가 활동하는 것도 애매하고, 처음에는 민주적인 노조에 속하니까 우리가 노조를 도우려 했어요. 음성적으로 신분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노동자들이 노조에 불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분을 너무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음성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보이지 않게 모

임 형성하고 했는데,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활동가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웃음)

●●● 아, 83년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난 거야. 어느 사람은 구두 만드는  
데, 어느 사람은 자전거 만드는 데. 그러니 회사 장악한다는 게 어려  
운 건 아니었죠. 그때 대여섯 명 된 거 같아요. 남자활동가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우리 세대보다 조금 낮은 학번이었고. 그 다음에 나며  
지는 여성들이었는데 학생 출신도 있고 현장에서 교육받은 노동자  
출신도 있었고 그런데 같이 만나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파궤가 많았습니까? 허허. 그로 인한 갈등도 있고, 그런 게 서  
로 중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연배가 많고, 또 선배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심적인 구실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갈  
등이 보이지 않게 있었죠.

●●● 83,4년경이면 노선이 드러날 시점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역적으로는 있었어요. 우리가 성수지역에서 가까우니까 거  
기 단체도 몇 개 있었고. 이념, 이런 큰 형태보다도 조직 간의 갈등,  
그러다 보면 또 활동 방법상의 갈등도 있었고, 또 이니셔티브<sup>initiative</sup>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어디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활동이나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든 활동가들이 만나게 되고, 각자의 현장 조직기반, 아니면  
지지기반들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어떤 건

도와주고, 어떤 건 압력도 가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신원이 드러나요. 기관장인데도 회사 편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나 노조 편에서 바른 말을 잘하니 까 좀 의심이 들었는지 신원조회를 해본 거예요. 신원이 드러나니 까 회사측이 나를 활동 못하게 하느라고, 85년 3월 13일자로 5급으로 승급시키고, 3월 18일에는 부산으로 발령을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잘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구제신청을 해서 부산 발령에 대한 이의를 표시한 다음,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총무부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총무부에 앉아서 버티기투쟁을 하는 거지. 그랬는데 서울 지노위<sup>지방노동위원회</sup>에서 기각당했어요. 그게 85년 3월 30일 날이예요. 그 다음에 중노위<sup>중앙노동위원회</sup>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5월 7일 날 중노위에서 다시 기각당해요.

그래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놓고 바로 이어서 승진 및 전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회사에서 내린 인사명령이 잘못된 것으로 된 거야.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관실로 복귀를 안 시켜요. 총무부 안쪽에 전무 방이 있었는데, 전무가 자기 방에 와 있으라는 거야. 딱히 총무부에도 내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 오히려 전무 방에 가 있는 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전무 방에 가서 전무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무가 또 충청도 동향 사람이고, 육사 출신인데도 막무가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화하면서 매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물론 전무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괜히 이런 데서 고생하냐'면서 사장에게 말해서 이사직이라도 줄 터이니 고집을 꺾으려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85년 5월 30일에 승진 및 전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일단 나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설득도 안 되는 데다가 이대로 회사 출근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그해 7월 15일 날 해고를 시켜요. 그래 당연히 부당해고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중노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 했다고 그랬죠? (예.) 이게 87년 8월 25일에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채심 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고등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취소시켜요.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지.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85년 5월 30일 가처분신청승소에 이어 87년 8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중노위 결정무효, 해고무효라는 판결이 나오. 회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는 쾌거를 올리게 된 거죠. 이런 쾌거는 노동운동사에서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럼 해고되시고 소송 중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사이에 회사도 못 나가니까, 바로 지역에 동부노동상담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연대활동을 통해 서울노련<sup>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sup>을 결성하고 87년 11월부터 그 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 다음에 서울지역노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맡고, 또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약칭 ‘전국노운협’)에 참가하게 돼요. 거의 87년에서 88년까지 이뤄지는 일들인데, 그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야당 대통령후보 단일화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야당후보 단일화운동이 펼쳐지

거든요. 이 협의회 노동운동 부문 공동대표를 제가 맡게 됩니다. 이게 부끄럽게도, 내가 태어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장 발휘했던 시기예요. 그때는 노동운동 대표라고 하면,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후보단일화운동 대표자격으로 후보단일화협상을 위하여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를 남산 밑에 있는 외교구락부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독자노선을 걷던 백기완 씨는 ‘단일화협상만 되면 본인은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양 김씨 3인이 협상을 하자고 마련한 자리에 김영삼 씨는 나왔는데, 김대중 씨가 나타나지를 앓았어요. 단일화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그게 후보단일화운동의 끝이야. 각자 갈 길을 간 거지.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때 김대중 씨 쪽에서는 ‘단일화운동 세력은 김영삼 세력이다’라고 오인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물론 이 당시 정세가 단일화로 가면 김대중 씨에게 불리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건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정이 어떻든 김대중 씨의 단일화협상 거부는 명백히 과오예요. 야당 대통령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열망이기도 했고,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단일화협상 실패 후인 88년 4월 14일에 내가 구속이 돼요. 서울 노련에서 발간된 『통일단결』이라는 기관지가 있었어요. 그 기관지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적출판물 제작배포혐의로 수

배령을 때려요. 처음에 내가 피해 다니다가 구속이 돼요.

●●● (성명서를 내밀며)이게 그 사건에 관련된 성명서 같아요.

예, 바로 [성명서를 손으로 치며] 그거예요. 근데 여기 성명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내 판단으로는 군부세력이 우리가 단일화운동에는 실패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재야운동에서 중심 위치에 서 있던 나를 격리시키기 위한 전술이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봐요. 서울노련 기관지 『통일단결』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발행된 것인데, 하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배령을 내리고 구속시킨 것도 그렇고, 대통령선거가 끝나니까 바로 기소유예로 나를 풀어줬거든요. (허 참.) 그래서 88년 4월에 구속됐다가 5월에 나왔던 거죠.

●●● 석방되어 나오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상층활동도 할 만큼 했고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 않은가, 게다가 복직판결도 받았으니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굳혔지요. 이제 신분을 속이지 않고 공공연히 활동할 수 있으니, 개선장군이 되어서 정당하게 현장에 복귀하는 것처럼 행운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마다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현장에 있지 못하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였지. 그러니 당연히 현장 복귀를 했지요.

### 대동화학 복직과 임금인상투쟁

●●● 그럼 복직하신 게 언제죠?

89년 1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2월 달에 대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노

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5월 17일에 비상임시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니까. 그해 임금인상 교섭시기에 결정적으로 노동조합과 우리 활동가 집단이 결별을 하는 시기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각 부서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뽑혀서 대의원을 했었어요. 나도 대의원이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같이 묶여져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인상 협상시기에 결정적으로 노조 집행부하고 결별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 노조와의 분리는 임금인상 요구안이나 싸움 방법의 차이를 둘러싼 건가요?

예, 그렇죠. 노조 집행부는 힘을 전혀 못 쓰지, 우리가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노조가 우리 주장을 받아 주거나 아니면 같이 어떻게 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무난하게 요령 있게 해서 임금인상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끝 내려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요구조건으로 볼 때 이걸 너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걸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거든요. 조흥은행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결정, 위원장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합원의 힘으로 파업을 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조흥은행이 은행관리를 하니까, ‘조흥은행이 소극적이다’ 해 가지고 광고 쪽에 조흥은행 본점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투쟁했어요. 무슨 투쟁을 했냐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잔뜩 갖다가

예금시키고 찾고, 또 예금시키고 찾고. (웃음)

●●● 허허, 완전히 업무방해였네요.

아주 지능적으로, 몇백 명이 가 가지고, 재밌었어. 좀 악랄했지만. 예금을 안 받을 수 없지. 돈 찾는 데 안 줄 수 없지, 은행에서 아주 골치를 앓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6월 달에 공권력을 투입해요. 마침 내가 바깥출입을 못 하다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밀히 담 넘어서 외출했을 때인데, 새벽에 투입이 됐어요. 그 당시 나는 검거가 안 됐다가 1년 정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됐어요. 그래서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90년 5월에 기소가 돼요. 90년 6월 26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받고 나왔죠. 이걸로 노동운동은 끝이었죠. 여기까지.

###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활동

●●● 서울노련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동부노동상담소를 거의 개인적으로, 대동화학 해고자들·활동가들과 현장노동자들까지 한 20명 해고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노동문제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있는데 ‘단체 만들자’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참여해서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서울노련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뭐라고 할까? 온건파라고 그럴까? 이념색깔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약했고, PD(People's Democracy) 반대적인 성향이 좀 있었고, 대중성을 좀더 강조했고. 청계피복노조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청계 멤버가 같이 활동했는데, 황만호, 김영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숫자로 볼 때 중심은 현장 출신들이고, 학출은 현장 출신에 비하면 한5분의1이나 될까? 아무튼 얼마 안 됐어요.

●●● 결성 초동멤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름이 드러났던 김영대라든가 황만호라든가 이런 경우는 알지만, 나머지 학출활동가들은 다 가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도 몰라요. 서울노련이 반공개로 활동하면서 나는 위원장이니까 신분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밑에서 뛰는 중견 간부들은 거의 가명이죠. 그래 내가 서울노련 기관지 문제로 끌려가서 안기부 장안동 분소에서 조사 받을 때, 조직원 이름을 대라고 추궁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진술서에 적었던 게 ‘우리는 다 가명이다.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아는 사람은 황만호, 김영대밖에 없다.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진술을 하나.’ 그래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가명 썼다는 거를. 그래서 넘어가면서 조직이 전혀 훼손 안 됐어요. 그때 부위원장 신분인 황만호만 불러가서 조사받았지만, 기관지 내용은 나의 결제하에 실렸다고 했으니, 황만호가 책임질 만한 일은 없었어요.

여하튼 나는 동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각 지역에서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로 봐야지, 내 개인의 역량으로 조직해 낸 거는 아니에요. 단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다’고 판단들을 했기에 내가 위원장이 된 거지, 내가 위원장을 할 만큼 무슨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해고자라서 걸리는 게 별로 없고 시

간을 여기에 바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공개된 신분이라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의 위치에 적격이었는데도 모르지요.

●●● 서울노련을 결성한 목적은 뭐였어요?

가장 큰 목적은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현장에서만 활동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바깥에 조직이 있어서 노동자 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현재 존재하는 합법노조들이 할 수 없는 활동의 일부를 반합법 단체에서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정도죠.

●●● 그럼 다른 노동단체들이랑 활동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는 여러 상황으로 큰 규모의 운동이라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직이 전국적으로 못하니까, 각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생긴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요. 서울지역에 만든 게 서울노동운동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만든 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되죠. 그때 인민노련, 이런 조직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 반공개 활동을 하면서 밑으로 비공개 활동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반공개 단체인 거죠. 제일 상층은 공개를 하고, 조직 이름도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통일단결』이란 잡지도 공개적으로 낸 거고. 저쪽에서 사상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그러나 하부 조직원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를 안 하고, 이름도 가명을 쓰고. 그리고 아무래도 노동운동단체니까 사상성이 내용적으로 적건 많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상적인 부분은 가급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언제 탄압받을지 모르니까 그 탄압에 대비를 하는 상황이었죠.

### 철거민투쟁과 지방자치선거 참여

●●● 90년 6월에 출감하신 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출감해서 당장 부닥친 게, 철거민투쟁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구의동 쪽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 처가 어린이집을 성수지역에서 운영하다가 행당동 산동네 쪽으로 옮겨서 했어요. 그러다 인연을 맺은 거야, 철거민투쟁을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활동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과거에 활동하던 사람이 나 몰라라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민투쟁에 관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을 맡아요. (웃음)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운명인 모양이지.

그런데 거기서도 활동을, 참, 재밌게 했어요. 철거지역을 완전히 방패물로 둘러싸서 해방구를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욕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철거민 단체들이 여러 개 되잖아요? 이게 서로 조직 간에 싸움을 벌이니까 내가 연대를 안 했어요. 나는 연합단체에 가입은 안 했어도 투쟁은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서로 싸우면서 ‘내 조직으로 와라’, ‘우리 조직으로 하자’ 이런 요구가 많으니까,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욕을 하겠지. ‘저 사람 연대 안고 뭐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연대 안 하고 철거민투쟁을 성사

시킨 데가 아마 우리일 것 같아요.

어떻든 완전히 담으로 둘러싸 가지고 해방구를 만들어서 격렬하게 싸움을 했죠. 한 명인가 구속됐는데, 아주 작은 희생이죠. 그렇게 해서 가수용 단지 따내고, 그 다음에 20여 세대 되는 미해당자들도 전부 공공임대아파트를 주는 걸로 협상이 돼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철거반대싸움을 단독으로 했던 건 없을 거예요. 운이 좋았는지 잘 마무리 됐어요.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어요. 지방자치 처음 실시할 때, 이게 1995년인가? 이때 내가 무소속으로 구청장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정치하겠다는 거보다는 지역운동의 한 방법, 또는 활성화의 수단으로써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무소속 출마를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선이 돼야 일을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철거민들 부대를 믿고 시작한 건데, 계산 착오한 게 몇 가지 있죠. 나를 선생처럼 따르는 숫자도 몇백 명 되지만 나를 완전히 적대시하는 세력도 집주인들을 비롯해서 꽤 많다는 사실, 그게 또 얼마나 무서운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산 못한 것도 있고, 아니 애써 무시했겠지요. 어쨌든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도 그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민주당 입당해라’ 하는데, 정당은 정치 신념에도 맞지 않고 대외적으로 하는 게 싫었어요.

버티다가 내가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때 지구당 위원장인 조세형이를 직접 만나서 담판을 했어요. ‘나를 공

천해 달라는 게 아니다. 단지 공천할 때 공정하게 공천선거를 치러서 해라. 그러면 나와 우리 조직원들이 입당을 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공천싸움을 해보겠다. 약속을 하겠느냐?’ 이 협상을 벌였어요. 조세형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참, 내가 닳고 닳은 정치꾼들을 믿은 걸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입당원서를 냈을 때가 공천을 위한 대의원투표가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예요. 우리 철거민 50여 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했어요. 내가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을 쭉 보니까, 인물 면에서는 경쟁구도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한 달 동안 대의원들을 휘어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이 서서 모험을 한 거예요. 경선투표 한 5일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의원 표의 80%를 확보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세형이가 약속을 파기하고 후보 선출 하루 전에 선임방식을 바꿔 버렸어요.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결정한다’고.

●●● 정말, 정치적이네요.

그러니까 조세형이는 내가 돈을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세력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당에 들어옴으로써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말만 믿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길 ‘후보를 사퇴하고 탈당하되 심사위원회에 가서 심사위원들에게 경위를 밝히자.’ 그래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거기 심사위원 중에 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조세형 위원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

요. 한참 지구당에 내용이 있었어요. 결국 조세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고재득을 낙하산 후보로 만들어요. 나는 무소속으로 나갔고. 무소속 치고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실패한 거죠.

●●● 구청장 선거 실패로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그 이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이후부터 사회활동을 접고 칩거해요. 인도에 아난다 마르가라는 대단히 큰 명상센터가 있는데, 그 지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96년에 이 명상센터에 입문을 해서 명상수행을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침술, 마사지,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 연구도 같이 하게 돼요. 97년에 아난다 마르가를 떠나 지금까지도 적을 두고 있는 국제명상협회로 명상센터를 옮겼어요.

명상센터와 대체의학연구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조금씩 대민활동을 하게 됩니다. 명상요가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2000년 초부터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에 가서 침술, 마사지 같은 걸로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요. 그 후부터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의료활동과 같이 사회복지 상담활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명상센터의 입문조건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채식주의<sup>vegan</sup>가 되어서 환경운동, 생명운동도 같이 펼치고 있어요. 육식은 건강문제도 일으키지만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일으키고 동물의 생명권까지도 위협하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온 거지요.

## 노동운동의 정리 이유와 현재의 삶

●●● 90년 출감하셨을 때, 노동운동을 일정하게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대동화학에서 활동할 때에도 회사 활동가들이라든가 지역활동가들만 접촉을 했지 대외적으로 거의 접촉을 안 했어요. 과거의 전국노운협하고도 접촉을 안 했어요. 활동을 자제하고 축소하는 방향이었어요. 철거민투쟁도 어쩔 수 없어서 했고, 지방자치의원 출마도 지역운동을 하다 보니 그 연장선으로 가본 것이고. 낙선이 나오 하여금 그동안의 활동을 뒤로 돌리고 칩거를 하면서 다른 세계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여하튼 운동을 정리한 이유는 과거의 활동이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러웠고, 부족한 나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활동과정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기간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활동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쪽 사회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념이라는 게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하는 것 같더군요. 내 마음이 잘 서고 도덕 윤리적으로 기본이 되고 거기에 이념이 서거나 해야지, 그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념적으로만, 사회과학적으로만 의식이 성장하다 보면 그건 무너지지 않는가.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나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돈에도 욕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변질하는 거지요. 그래서 김문수 같은 친구도 나오고, 허허. 참, 나는 김문수가 당혹스런 사람이야. 나하고 변질 하루 전에 만났었어요. 청계피복 갔다가 어딘가에

서 만났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나한테 외쳤어요, ‘앞으로 우리는 좀 더 혁신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하고 어찌고….’ 아니,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엉뚱한 데서 기자회견 하더라고. 현실정치를 하겠다고, 그것도 현 여당에 입당해서 말이야. ‘아, 이거 아닌데…’, 허허. 나한테 한 1년 후배 되지. 이재오 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그런 일도 많이 당했고. 나도 돌이켜 보니 잘한 것만 있는 거 같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나부터 먼저 솔직하게 사죄하고 싶어요.

나는 앞으로 활동가들이 마음 닦는 작업들을 소홀히 하면 우리 운동은, 그게 환경운동이 됐든 민주화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아마도 삼천포로 빠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마음을 옹기 세워야 된다. 자기를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면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것이 자기 출세의 도구로 전략한다’고 봐요. 그러면 운동은 실패하는 거죠. ‘나도 알게 모르게 혹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 아니냐’ 그런 회한이 많이 있어 수년 동안 칩거하면서 수행을 한 것이지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칩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대중봉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대한 봉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전노운협, 대선 후보단일화, 그 시기까지 활동하셨는데, 운동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88, 89, 90, 91년은 단체운동이 필요한 시기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운동이 이제 대중 속에 뿌리내리면서 전국성을 가져 가기 때문에 단체운동이 필요했던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운동의 경향성이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가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즉 인간 자체의 문제지요. 서로 간에 너무 불필요한 다툼이 많고, 이념을 위한 이념이라든가, 단체를 위한 단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너무 많이 섞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좀 피로도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어, 내가 이렇게 너무 붕붕 떠다니다가는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의해서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 가지고 ‘아이구! 이거 얼마나 잘됐느냐, 현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술하게 많은데, 복직 판결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야!’ 아주 나는 좋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회한들도 많아서, 이제는 그런 관계는 청산해야겠다는 판단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 보지요. 왜 운동이 지리멸렬해졌는가를, 무엇이 그 주요 원인인가를.

●●● 노동현장 세 곳을 경험하셨는데, 선생님이 현장 들어가시기 전에 생각했던 노동자의 모습하고, 현장에서 마주쳤던 노동자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가서 하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갔지만 실제 노동자들 접하면서 괴리감이 아무래도 존재하니까, 그런 걸 메우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마음이 전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점을 대동화학에서 상당히 깊이 느꼈고. 그래서 거기 활동할 때 아까 ‘재밌다’는 표현을 했는데, 참, 열렬한 지지 속에서 그게 이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은행 가서 싸

올 때에도 재미 느끼면서 아주 즐겁게 한 거거든요, 그런 운동들이. 허허.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 분위기였고,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더 줬더라면 좀더 나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 현장에서 80년대 학출들을 봤을 때, 활동방식이나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리는 이념 지향적인 게 있었으나 그걸 바깥으로 막 노출시켜서 뭔가 커다란 논쟁을 하는 분위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좀더 충실히 하는 분위기였는데, 허허,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논쟁이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겪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같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모습은 서울노련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 그동안 운동했던 분위기나 활동방식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학생운동 시기가 됐든, 노동운동 시기가 됐든, 또는 철거민투쟁 시기가 됐든 간에, 한때 일정한 어떤 운동 과정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열렬한 감정으로 활동한 것도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갈등, 또는 마음의 닻이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오는 이념의 형해화라든가, 또는 무슨 단체를 위한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걸 보고, 또 스스로들이 그런 걸 자처하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닦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그런 문제

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이름을 빌리든, 어떤 이념을 빌리든, 어떤 명분을 세우든 간에, 그 운동은 아마 궁극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 공장을 안 다니셨을 땐, 경제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활동할 때는 경제를 걱정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데, 여기저기서 그냥 뭘 갖다 주며 보조들을 많이 해줬어요. 단체 보조도 있고, 개인 보조도 많았고. 그 정점의 시기가 대통령후보 단일화운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년 동안은, 이거 부끄러운 애긴데, 돈 걱정 때문에 활동을 못한 거라든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활동을 못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내가 어린 이집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되죠. 그런데 그게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될 정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딱 지나니까 어려움을 한참 겪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자라 자기 몫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도 해서 수입도 생기고. 요즘 봉사활동은 교통비라도 줘 주는 경향이라 그럭저럭 지낼 만해요. 내가 칩거기간 많은 자격증을 따놓은 게 제법 쓸 데가 많아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환경관리기사 대기 1급, 열관리기사 1급 자격증도 쓸모가 있었어요. 내가 대체의학 공부를 90년대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김남수 옹이라고, 칩뚝으로 유명한 김남수 옹이란 분한테 칩뚝도 배우고. 이리저리 건강분야에서 자격증도 많아, 웬만한 건 다 해요.